

## 커버스토리

## “첨단 테크놀로지가 물류를 도와줘~”

## 불황속 물류기업 돕는 ‘똑똑한 IT’



어느 시장이나 2009년은 먹구름 가득한 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지난해 중순에 시작된 미국발 경기불황은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를 푹푹 얼려버렸고 기업들의 주머니는 가볍게 만들었다. 반면 유가나 임금의 상승으로 기업의 비용부담은 더 커졌다. 그야말로 들어오는 것은 없는데 나가는 것은 많은 최악의 비즈니스 환경이다.

## 물류기업, 절벽위에서 아슬아슬

특히 물류시장은 글로벌 경기불황으로 물량이 절반 이상 줄어 보릿고개 넘듯 2009년 상반기를 보냈다.

지난 2월 국내 10위권 선사인 삼선로지스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더니 C&상선이 경영에 노란불을 켜고 결국 신용등급이 부도 직전으로 강등 당했다. 이어 최근에는 대우로지스틱스와 TPC코리아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20년이 넘게 포워딩 회사를 운영한 한 CEO는 “회사를 설립한 이래로 처음으로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못했다”며 어려운 경제 환경을 원망했다.

3분기 이후로 다시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이 들리지만 흑자를 내고 물류산업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로컬기업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유가가 하루가 다르게 급상승하면서 모든 물류기업에게는 ‘기름 아끼기’라는 특명이 주어졌다. 화물연대는 더 이상 유가의 무게를 버틸 수 없다며 손을 들었고 그 후유증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잠시 주춤했던 유가는 최근 다시 조용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다시 한번 물류기업을 긴장시켰다. 또한 예전에는 자기만의 시장에서 경쟁하던 기업들이 신시장 개척을 필두로 타 물류시장까지 넘어오면서 물류시장의 경쟁은 최고조를 달리고 있다 3PL을 안하는 기업들이 없고 그룹 물량을 책임지는 자회사들 마저 3PL시장을 넘보고 있다.

## “이것, 저것 다 해주시고요 가격은 최소로요”

물류기업의 오래된 고질병으로도 불리는 저가경쟁은 경쟁심화로 해결될 조짐조차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화주기업들의 비용절감은 고스란히 물류비 감소라는 이름으로 물류기업에게 넘어와 저가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한 물류기업 관계자는 “컨설팅을 통한 제안형 영업, 물류 전문가, 다 필요 없다. 오로지 최저가라는 무기만으로 새로운 화주를 유지할 수 있다”고 극단적인 표현까지 했다.

더 안 좋은 소식은 화주의 요구수준은 더욱 더 까다로워지고 고도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소비자들만큼 까다로운 고객들이 없다고 하지 않던가. 이것, 저것 다 해달라고 하면서 가격은 저렴한 걸 원하니 공급자들은 ‘환장’ 할 노릇이다. 물류기업들도 단순 운송이 아니라 ‘고객 만족’, ‘녹색물류’, ‘보안’ 까지 해야 할 일은 더 많아졌다. 이젠 물류기업 스스로 못하겠다. “첨단 테크놀로지가 도와줘~”

## 첨단 테크놀로지의 힘을 빌리자

대부분의 물류 관계자들은 성장의 공헌자로 IT를 꼽는다. 제품의 운송이라는 오프라인의 이동을 정보라는 온라인의 이동이 지원해줌으로써 그 속도와 효율성을 업그레이드시켰다. 또한 실시간으로 제품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거나 재고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소비자의 궁금증도 채워줘 만족감도 향상시켰다.

그러나 지금까지 IT의 도움은 실시간 정보 공유에 치중된 편이었다. 여기에서 벗어나 녹색물류, 보안까지 첨단 테크놀로지가 물류기업을 돕겠다고 나섰다.

## 효율성 향상, 그 수준이 높아진다

이젠 정보 이동만으론 물류기업을 만족시킬 수 없다. 많은 정보를 더 빨리 한눈에 알아 볼 수 있기를 원한다. 게임에서나 볼 수 있던 3D가 물류센터로 들어왔다. 3D로 재고현황, 오래된 재고를 파악하고 작업 지시까지 내릴 수 있어 게임을 즐기듯 물류센터 관리가 가능하다. 엠프론티어(대표 김상훈)는 3D로 가시성을 높인 ‘Air-WOS’ 라는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지난해 굿소프트웨어(GS)인증을 받고 글로벌 물류환경을 가진 LG전자, 현대모비스에 공급될 정도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한국오라클(대표 유원식)도 그들만의 TMS인

OTM(Oracle Transportation Management)으로 물류기업의 효율성 향상을 돕고있다. 항공, 철도, 해상 등의 운송 수단을 단일한 애플리케이션으로 통합해 운송 계획과 실행 기능을 동시에 제공한다. 지난해 SCM로지스틱스 엑셀런스 어워드에서 ‘운송관리 소프트웨어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음성인식기술도 물류시장을 넘보고 있다.

아세테크(대표 박종석)와 EXEc&t(대표 강석현)는 미국의 보콜렉사와 리셀러 계약을 맺고 보이스포킹 시스템을 한국에 들여왔다.

## 녹색, 테크놀로지로 완성되다

2009년의 최고 키워드는 바로 녹색이다. MB정부의 강한 녹색 의지는 물류기업에까지 미쳤다. (주)세이버스(대표 정순홍)는 자동차 공회전 방지장치인 eco-drive 제품을 들고 나왔다. 신호정지나 정차때 있을때 공회전하고 있는 엔진을 쉬게해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것이다. 비용을 줄이고 지구는 지킬 수 있는 1석 2조의 제품이다. 최소 10%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고 한 대의 약 50만원 선으로 가격도 비교적 저렴한 편이다.

KLNET(대표 박정천)도 삼성전기와 전국 항만과 물류기지의 조명을 친환경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 고객의 정보까지 지켜라

물류기업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미션은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라’다.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관심과 정보유출로 인한 산업 경쟁력 피해가 더더욱 심해지면서 물류기업들에게 보안 문제까지 다가왔다.

온세텔레콤(대표 최 호)은 운송장에 실제 고객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가상전화번호가 기재되는 가상 번호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현대택배와 우정사업본부가 사용하고 있고 대한통운도 테스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LNET도 지문인식으로 항만의 보안수준을 높였다. 항만 출입신분증, 지자체 복지카드, U-자전거 카드, AEO관련 사원증 등이 지문인식 보안사업에 진출했다.

〈배수진 기자, sjbae@knews.co.kr〉